

# 광주 각화농산물시장, 효령동 일원으로 옮긴다

### 32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향후 5년간 거래 제한 시, 미래비전 공유...통합특별시 농산물 유통·물류 거점

광주시가 지난 35년간 지역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을 복구·효령·용진·용강동 일원으로 이전한다.

광주시는 2일 복구 각화동 시화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부지를 확정된 내용을 담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시설현대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를 검토했다. 고속도로 접근성, 개발제한구역 활용에 따른 사업 추진 신속성, 정형화된 지형에 따른 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효령·용진·용강동 일원을 최종 이전지로 선정했다.

확정된 효령·용진·용강동 일원은 교통요충지로서의 입지 조건이 탁월하며, 기존 부지 대비 약 6배 규모인 32만㎡(9만8000평)의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유통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시는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되면 총사업비 3149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롭게 건립될 농산물도매시장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첨단 유통시스템을 갖춘 종합물류동과 함께 200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배치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전 예정지 일대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부지 일대 32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된다.

시는 다음달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추진해 시행에 사업 확정 전 무분별한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을 방지,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풍년 기원' 고싸움놀이 지난 1일 광주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테마파크에서 열린 제43회 고싸움놀이 축제에서 고싸움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국가 중요 무형유산인 고싸움놀이는 벚잠으로 만든 대형 '고'를 맞부딪히며 힘을 겨루는 전통 대동놀이로, 풍년과 마을의 안녕, 공동체 정신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새로 이전할 도매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으로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 배후지를 기반으로 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전남의 산지와 광주의 도매시장을 연계

하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만족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광역 단위 물량 조절

기능을 한층 강화해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특별기금 설치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

아 시설 현대화와 유지관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전남도, 쌀 소비 확대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전남도가 경로당에 공급하는 양곡을 친환경 인증 쌀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해 어르신 급식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쌀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차액지원 사업'은 경로당에 공급하는 기존 정부관리양곡이나 일반 양곡을 친환경 인증 쌀로 전환할 경우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로당 급식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과 건강 유지를 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쌀을 공급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식사의 안전성과 영양 수준을 높이고 경로당에서도 부담 없이 친환경쌀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의 소비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농가의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tbul@

### 강진원 군수, 당원자격 임시회복... 선거판 요동

####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져분 인용... 민주당 공천 가능성 열려

법원이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받은 강진원 강진군수(사진)의 손을 들어 주며 강진군수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2일 강 군수 측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최근 강 군수가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져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징계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까지 지난 1월 28일 내린 '당원자격정지 6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원자격정지는 당원권이 전면 제한되는 중징계로, 강 군수의 징계 기간은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일정이 포함,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가 어려웠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강 군수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효력은 잠정 정지됐고, 당원 자격을 임시로 회복하면 6월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자 자격 제한이 일단 해제돼 당내 경선 및 후보자 추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민주당이 불복해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으나, 과거 공천 과정에서 법원의 가져분 결정을 존중해 경선 참여를 허용한 사례



가 많았던 점으로 봤을 때 법원의 결정은 강 군수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소속 출마가 유력했던 강진원 군수가 당원자격을 임시로 얻게 되면 민주당 경선 구도가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진원 군수는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강진군수에 당선된 뒤 재선을 거쳤고, 이어 2018년 3선 도전에 나섰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2022년 선거 댄 금권선거 논란으로 민주당이 강진군수 후보 무공천을 결정하자, 강 군수는 무소속으로 나서 당선된 뒤 2024년 복당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김신 완도군수 후보, 민주당 탈당 무소속 출마 직격심사부터 배제 움직임 지적... "두 번 울 순 없다"

오는 6월 완도군수 선거 유력 주자인 김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전 완도군의원·사진)이 선거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격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신 전 완도군의원은 민주당의 '컷오프(공천 배제)' 움직임에 맞서 군민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겠다는 무소속 배수진을 치면서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김신 전 군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는 "완도의 미래는 어느 한 정당의 소유가 아니라 군민 모두의 것이다. 억울한 공천 경선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믿고 경선에 참여하고자 했다"며 "조직의 판단이 아니라 군민의 선택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번 탈당의 결정적 배경으로 당내 공천 심사의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거론했다.



그는 "(공천 과정)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는 상식을 기대했다"면서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6년 전 탈당 이력을 발미로 '25% 감점 대상자'라는 낙인을 찍어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배제를 전제로 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공천 과정을 주도하는 지역 구 위원장과 공천위 임원들이 완도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공천 과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본선에도 나서지 못했던 아픔을 반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다"며 "완도 사랑을 실천해 온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연중캠페인

## 운전할 땐 안전벨트

안전거리 · 전방주시 · 벨트착용

광주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교육센터

GTCI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구소